

# 공산주의와 기호\*

## - 언어 통치에서 수행적 전환으로

김수환\*\*

### 【 차 례 】

- I. 공산주의와 언어: 소비에트의 경우
- II. 언어로의 전화: 사회의 총체적인 언어화
- III. 역설과 총체성의 논리: 보편주의와 평등의 문제
- IV. 후기 사회주의: 스탈린의 패러다임 전환
- V. 수행적 전환: 역설의 소비에트
- VI. 담론의 끝: 공산주의, 언어와 더불어 살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공산주의와 언어의 관련성 문제를 현실공산주의(구 소비에트)를 대상으로 고찰한다. 소비에트 체제를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행해진 언어로의 전화(linguistic turn)”의 결과물, 곧 “총체적으로 언어화된 사회”로 규정하는 보리스 그로이스(B. Groys)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그것을 공산주의 체제의 언어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견해와 연결시켜 논의해본다. 스탈린 사망 이후 소비에트 내부에서 발생했던 담론구조의 심오한 변동현상에 주목한 알렉세이 유르차크(A. Yurchak)의 연구는 권위적 담론형식의 수행적 반복이 오히려 그에 대한 창조적 일탈 및 전유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독특한 역설을 파헤침으로써 그로이스의 도발적 견해를 적절히 보완하는 동시에 ‘언어 제국’ 소비에트의 종말을 둘러싼 의미심장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열쇠어 : 소비에트 공산주의, 보리스 그로이스, 언어, 역설, 알렉세이 유르차크, 수행적 전환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및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CF-362-2009-1-B00005).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

## I. 공산주의와 언어: 소비에트의 경우

공산주의 체제와 언어(기호)의 문제를 연결시켜 바라보는 기존 관점은 주로 대중 의식 조작 및 동원을 요체로 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언어 비판이 그 주종을 이룬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유명한 “신어(Newspeak)” 개념에 빗대 소비에트의 전형적인 이념적, 정치적 언어를 노보야즈(novoyaz)라 칭하기도 했고,<sup>1)</sup> 언어유도(Sprachlenkung) 개념을 요체로 하는 파시즘 언어가 전체주의의 틀 안에서 분석되기도 했다.<sup>2)</sup>

한편, 언어적 구성을 체제의 작동 원리 자체와 연동시키는 논의는 오늘날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훨씬 더 일반적이다. 포스트-포드주의 신경제 체제를 일종의 “기호자본주의”로 규정하고 그 속에 내재된 위기와 (해방적) 역량을 동시에 강조하는 자율주의의 입장이 대표적인데, 이들에 따르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과 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언어다. 금융의 세계가 언어적 관습을 통해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배적인 새로운 노동의 형태들이 언어를 통해, 그리고 언어적 수행과 유사한 수단들을 통해 생산된다.<sup>3)</sup> 이런 입장은 역설적으로 그와 같은 기호자본주의 속에 ‘내재하는’ 공산주의, 곧 “자본의 공산주의”<sup>4)</sup>를 말하게 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공산주의와 언어의 관련성 문제를 (단지 통치를 위한 언어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체제의 본질 및 작동원리의 측면에서 다룬다는

---

1) М. Кронгауз, “Бессилие языка в эпоху зрелого социализма”, *Слово за слОВО: о языке и не только*, РАНХ и ГС Дело, 2015, 77-89쪽.; 남혜현, 「의례의 언어로서의 소비에트 노보야즈」, 『슬라브어 연구』 21(2), 한국슬라브어학회, 2016, 115-131쪽.

2) 김종영, 『파시즘언어』, 한국문화사, 2003.

3) 크리스티안 마라찌, 『자본과 언어: 신경제에서 전쟁경제로』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3, 8-13쪽.

4) P. Virno, *A Grammar of the Multitude: For an Analysis of Contemporary Forms of Life*, London: Semiotext(e), 2004.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현대자본주의(혹은 ‘도래할 미래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현실공산주의(구 소비에트)를 대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들과 구별된다. 이 글에서는 소비에트 체제를 “총체적으로 언어화된 사회”로 규정하는 보리스 그로이스(B. Groys)<sup>5)</sup>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그것을 공산주의 체제의 언어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견해와 연결시켜 논의해볼 것이다. 스탈린 사망 이후 소비에트 내부에서 발생했던 담론구조의 심오한 변동현상에 주목한 알렉세이 유르차크(A. Yurchak)의 연구가 그것으로, 권위적 담론형식의 수행적(performative) 반복이 발생시킨 독특한 역설에 천착하는 유르차크의 관점은 그로이스의 도발적 견해를 적절히 보완하는 한편 ‘언어 제국’ 소비에트의 종말을 둘러싼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언어로의 전화: 사회의 총체적인 언어화

지난 세기 75년간 존속했던 소비에트 연방을 ‘공산주의’로 간주할 수 있을까? 언뜻 동어반복처럼 느껴지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이 질문에는 나름의 맥락이 존재한다. 언제부턴가 귀에 익숙해진 ‘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sup>6)</sup>에 따르면,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5) 보리스 그로이스는 러시아 출신의 철학자, 예술 비평가, 미디어 이론가로 현재 뉴욕 대학교 러시아 및 슬라브 연구 글로벌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스탈린 시기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혁명적 아방가르드의 계승자로 부각시킨 문제적인 데뷔작 『스탈린의 종합예술』(1995) 이래로 현대예술 및 매체에 관한 흥미롭고 도발적인 이론적 성찰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현재 동시대의 가장 주목받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요성과 명성에 비해 그간 한국에 소개가 미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017년에 3권의 책(『새로움에 관하여』, 『코뮤니스트 후기』, 『반철학 입문』)이 번역 출간되었다.

6) “공산주의라는 이념(The Idea of Communism)”은 바디우의 책 *The Communist Hypothesis* (Verso 2010)의 마지막 챕터 제목으로, 이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돌아가며 열린 “공산주의라는 이념” 컨퍼런스의 모태가 되었다. 지난 2014년(9월24일 - 10월1일)에 서울에서 제 3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바디우가 인정하는 대문자 사건은 예수부활과 1871년 파리 코뮌 뿐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그가 꼽는 “진리사건”에 포함

시도들이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고 말해야한다. 오늘날 공산주의를 논할 때 불가피한 것이 되어버린 이 질문에 그로이스는 주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소비에트 연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전의 그 어떤 사회보다도 더 멀리 공산주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sup>7)</sup>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소비에트에서 언어(즉 정치)가 돈(곧 경제)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것이다.

이후로 내가 말하려는 공산주의는 정치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기획을 가리킨다. 경제는 돈을 매개로 기능한다. 그것은 숫자들을 통해 작동한다. 정치의 언어를 매개로 기능한다. 그것은 단어들, 이데올로기, 주장, 프로그램, 탄원들 뿐 아니라 명령, 금지, 결의안과 판결문 따위를 통해 작동한다. 공산주의 혁명은 돈의 매개로부터 언어의 매개로 사회를 번역transcription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행해진 언어로의 전회linguistic turn다(7쪽).

여기서 ‘언어로의 전회’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호학적 설명, 그러니까 언어적 구조와의 유비나 세미오시스의 메커니즘 따위의 전형적인 표현과 연동되지 않는다.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실행된”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그것은 말 그대로 ‘언어’(라는 새로운 화폐) 없이는 사회적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로이스의 재기어린 비유에 따르면, 모든 것이 언어적으로 결정되고 언어적으로 비판되는 이런 세계에서는 “가게에서 파는 신발이나 계란 혹은 소시지에 대해 항의하는 일이 가능하다.”(13쪽).

그로이스는 소비에트를 “권력과 권력을 향한 비판이 동일한 매개를 통해 작동하는 사회”(10쪽)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언어를 매개로 정치적

---

되지 않는다.

- 7) 보리스 그로이스, 『코뮤니스트 후기』 김수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 10쪽. 이후로는 본문의 괄호 안에 쪽수 표기함.

결정들에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정의는 애초에 그런 결정들 자체가 언어를 매개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어는 권력을 향한 저항의 수단임을 넘어서 해당 권력 자체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이 [공산당] 지도부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언어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그토록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여한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일탈에도 그토록 격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어 바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점, 그리고 만일 언어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면 모든 것 잃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15쪽)

“사회의 총체적인 언어화(inguistification)”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법한 이런 진단은 과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소비에트의 독특한 세미오시스에 주목한 사람이 그로이스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 모종의 근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소비에트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은 분명 평범한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슬라보예 지젝은 “진정한 기호의 제국은 바로 스탈린의 소련이었다”라는 말로 소비에트의 독특한 의미론적 포화상태를 지적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소비에트의 세미오시스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공식적 표현들의 경우 제 아무리 사소한 변경일지라도 격렬한 해석활동을 촉발하는 신호, 어쩌면 혼란이나 패닉사태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메타언어적 지시로 해석될 수 있었다. 즉, 거기서 말(외형)은 단지 무언가를 지칭하는 수단(그릇)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세계 자체를 지탱하는 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해진 아주 작은 변형조차도 세계 자체를 향한 발언, 나아가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8)</sup>

8) 슬라보예 지젝,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박정수 옮김, 그린비, 2009, 331쪽.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젝의 이런 해석은 사실 형식만 남은 기호의 진공상태를 오히려 의미의 포화상태로 거꾸로 진단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언어가 발휘하는 이런 절대적인 권능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로이스의 독특함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언어학자 스탈린”을 동원하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로이스는 스탈린의 유명한 논설 「언어학에서 마르크스주의에 관하여」를 다시 읽으면서, 그것을 ‘사회의 총체적인 언어화’라는 소비에트식 존재론에 부합하는 적절한 언어관으로 부각시킨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학문적 논의에 직접 개입한 이 이례적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혁명 이후 1930년대 들어 소비에트 언어학은 일종의 ‘관치 언어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주의Marrism가 득세하게 되는데, 이는 언어가 상부구조의 일종이며 그 본질이 계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니콜라이 마르(N. Marr)의 언어관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던 이런 상황이 1950년 여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게 된다. 언어학자 치코바바가 5월 9일 『프라우다』紙에 마르의 신언어학설을 비판하는 장문의 논설을 게재한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신문지상에서 격주로 이어졌는데, 1950년 6월 20일 스탈린이 글을 게재하며 전격적으로 직접 개입한 것이다. 스탈린은 가상의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글을 7월4일과 8월2일자 신문에 재차 게재함으로써 사실상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고, 결국 마르크주의는 파산을 맞게 된다.<sup>9)</sup>

이 글에서 스탈린은 마르의 계급적 언어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언어는 “모든 구성원들 공통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스탈린이 산파 역할을 했고 사실상 키워 왔다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언어학을 그 자신의 손으로 다시 깡그리 부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는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도 많은 이들의 고민

9) 치치코바의 회상에 따르면, 『프라우다』紙를 통한 논쟁은 사전에 스탈린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20세기 소비에트 언어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든 이 사건의 역사적, 담론적 배경을 둘러싼 상세한 내용은 이기웅, 「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마르크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193~239쪽,와 『코뮤니스트 후기』의 옮긴이의 말 「소비에트의 재발명: 돈이 아니라 언어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170-172쪽을 참조하라.

거리였다. 스탈린 통치가 계급주의적 국제주의를 벗어나 러시아 민족주의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신호라는 해석이 유력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 스탈린의 언어학 논설을 둘러싼 이런 저런 해석의 역사를 모를 리 없는 그로이스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텍스트의 의미를 과감하게 자기 식으로 전유한다.

그로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스탈린은 결코 언어를 상부구조와 같은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할 수 없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스탈린의 지도력 또한 결과적으로 제한될 것이고 그의 권력도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도력을 무제한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언어의 범위와 능력을 무제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언어는 인간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산에서 토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토대에서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전 영역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다른 모든 활동들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인간활동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언어의 활동 영역이 상부구조의 활동 영역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사실상 무제한적이다.(80쪽).

여기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언어의 활동영역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는 언어가 “모든 인간 활동 및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즉 돈과 자본을 전적으로 대체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적 과정들은 “토대와 상부구조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시장) 경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결국, “공산주의 사회에서 실현되는 것은 언어의 바로 이런 능력이다”(82-83쪽). 그런데 『자본론』에 관해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르크스가 말한 ‘화폐’의 권능을 떠올릴만한 이런 정식화에서, 그로이스가 겨냥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로이스/스탈린이 말하는 언어의 권능은 자본주의에서 화폐가 갖는 추상적 보편성에 대응되기는 하지만 본질상

그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 III. 역설과 총체성의 논리: 보편주의와 평등의 문제

공산주의에서 언어가 가지는 특별한 능력의 요체는 (그로이스가 말하는) “역설(paradox)”의 힘과, 그것이 수반하는 “총체성(totality)”의 논리에 있다. 앞선 논설에서 언어를 규정하면서 스탈린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기이한 역설의 태도를 취한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상부구조도 토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산력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은 상부구조이자 토대이며 동시에 생산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언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82쪽) 언어에 대한 이런 모순적 규정(A도 B도 아니지만 동시에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의 배후에는 언어란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넘어서는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로이스는 서로 모순되는 명제들의 동시적인 타당성을 인정하는 논리, A와~A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 역설의 논리를 두 가지의 담론적 선례와 연결시킨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외견상 논리적이고 모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소피스트들의 매끄러운 말속에 담긴 역설을 폭로하는 동시에 오히려 그와 같은 역설의 필연성을 설파하는데, 이런 그의 말이야말로 역설의 최초의 선례다. “소피스트적 담론과 철학적 담론의 차이는 오로지 다음의 사실에 놓여 있다. 철학은 소피스트적 담론이 감추고 싶어 하는 자기모순을 공공연하게 주제화한다(...)플라톤에 따르면, 오직 역설만이 논리의 힘으로 세계를 통치하는데 필요불가결한 명료함을 낳을 수 있다. 플라톤의 국가는 역설의 명료함 위에 세워지며 역설에 의해 통치된다.”(27-28쪽)<sup>10)</sup>

---

10) 그로이스는 소피스트를 매끈하게 짜인 말의 텅 빈 외관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기업가”로, 역설적 구조를 감춘 그들의 말을 일종의 “언어적 상품”으로 묘사한다. 이때



두 번째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사고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모순과 역설의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을 뜻한다.”(56쪽). 변증법적 유물론은 삶이 내재적으로 모순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역설을 통해 삶을 포착할 것을 추구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역설의 방식이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공식화될 때 그것은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전략의 동시적인 실행으로 구현될 수 있다. 스탈린의 저 유명한 “일반노선”은 사실상 “좌파와 우파 대립자들의 요구들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의 단 하나의 차이점은 “당 내에서 대립하고 있는 입장들의 상충된 요구들이 동시에 수용되고 옹호되고 있다는 것이다.”(59쪽)<sup>11)</sup>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말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역설을 관통하는 공통의 핵심은 무엇일까? 세계 전체를 향한 열린 총체성이 바로 그 핵심이다. 철학자의 담론에 의해 역설이 폭로될 때 나타나는 명료함의 효과는 오직 그것이 전체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역설은 언어적 총체성의 이콘icon이다(...)그런데 언어의 총체성이란 가능한 모든 테제와 안티테제들의 통일을 사유한다는 것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역설은 그것이 언어의 총체성을 향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콘이 될 수 있다.”(33-34쪽).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곧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로지 전체, 즉 총체성만이

---

그들의 말은 돈을 매개로 “역설을 타협으로 바꿔치기”한다. “타협, 그것은 역설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지불된 역설이다.”(32쪽)

- 11) 그로이스는 이와 같은 역설의 정치 전략의 최초 사례로, 1908년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좌익 진영의 유명한 논쟁을 든다. 지하투쟁을 단념하고 당을 합법 정당으로 재조직하기를 바라는 ‘청산파’와 두마(의회)를 떠나 당 전체가 지하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는 ‘소환파’의 요구 사이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두마에 대표단을 보내고, 지하에서는 그 두마를 포함한 체제 전체와의 투쟁을 실시한다.”(58쪽). 이 ‘모순적’ 제안의 의도는 명백하다. 즉 투쟁은 양쪽 모두에서, 그러니까 평화적 수단을 통해 두마 내부에서, 그리고 혁명을 예비하면서 두마 바깥쪽에서 ‘동시에’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직 그렇게 될 때만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이 사회의 ‘전체’ 영역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58쪽).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A를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A의 부정을 금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A의 부정이 금지된다면, A의 부정은 전체에서 배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는 전체로서 살아 있는 것이기를 멈추게 될 것이다.”(61쪽)

이런 식의 논리가 확립되면, 다양한 대립물들의 운명이 그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주어진 주장의 정당성이 그 주장의 반대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이끌어내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63쪽)이다. 여기서 흔히 경직되고 도그마적이라고 비판받는 소비에트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색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사실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이 이데올로기가 모순되며 현실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주장들에 대해 그것이 보여주는 모종의 면역력에 있다. 이런 면역력의 근거는 그러한 비판을 무시하는 태도나 빈약한 수용력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런 면역력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세계관이 모순적이라는 증거가 이 세계관을 논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확증해준다고 보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확신에서 나온다.”(64쪽).<sup>12)</sup>

결국, 그로이스가 그려내고 있는 소비에트라는 언어의 왕국은 모순과 역설, 무엇보다 총체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판명된다. 그것은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형식논리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와 구별된다. 흔히 생각하는 (공산주의적) 도그마는, 이렇게 세계 전체를 향한 ‘열린’

12) 그로이스에 따르면, “소비에트 연방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이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대체로 그러한 비판들은 스탈린식 정통 교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소비에트 내부 반대자들의 갖가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와 같은 비판들은 애초부터 그 교리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었던 바, “이 시기에 변증법적 유물론을 배운 학생들 가운데 이런 상호 모순되는 비판들에 당황했던 학생들은 교수로부터 기본적으로 단 한가지의 조언만을 들을 수 있었다. 모든 비판들을 통합하여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그 결과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얻게 된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대한 서구의 비판들을 (재)비판하면서 수천에 달하는 출판물들이 등장했다.”(64-66쪽)

총체성의 논리로 전복된다.

언어는 오직 그것이 전체와 더불어, 총체성과 함께 시작할 때에만 경제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 소비에트 연방은 이런 의미에서 철학 왕국의 한 형태였다.(91쪽)

여기서 그로이스가 말하는 역설과 총체성의 논리가 이른바 ‘보편주의’의 문제와 연동되는 것임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다. 그로이스에 따르면, 소비에트에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 시민들 또한 “철학적 사상가로 인정받았을 때에만 그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를테면, “오늘 칠레 공산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순간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 어떤 새롭고 파괴적인 모험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거나, 봉급이 인상되지 않거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감수해야만 했다”(91쪽)는 사실이다. 요컨대, “진정한 소비에트 시민이란 충분히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즉 자신의 부분적인 필요를 전체의 맥락 속에 가져다놓을 줄 아는 사람”(92쪽)이다.<sup>13)</sup> 그런데 바로 이것, 전체 언어의 규모로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느껴야만 할 필요성이야말로, 온갖 종류의 특수주의(particularism, 공동체주의, 정체성 정치가 횡행하고 있는 현재가 상실해버린 (공산주의적) 보편주의에 해당한다.<sup>14)</sup>

---

13)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에트인에게 부여된 원칙적인 요구가 “소비에트식 사고가 아니라 소비에트적이면서 동시에 반소비에트적인 사고, 곧 총체적인 사고였다는 것”이다. 그로이스에 따르면, 브레즈네프 시기에 최초의 반체제 인사들이 소비에트 연방에 관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 그들의 말은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가들을 매우 당황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 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나 알고”있는 것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나이브하게 구축되었고, 너무 일면적이고 너무 비변증법적”이었기 때문이다.(93쪽).

14) 그로이스는 한 인터뷰에서 공산주의가 그 자체로 ‘보편적인 독트린’, “잠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사회의 모델을 창조하려는 시도”였음을 강조하면서, 이 책을 쓰도록 만든 가장 큰 요인이 “사람들이 감히 보편주의에 입각해 생각하고 행동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은 충동”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Борис Г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위부터 아래까지 사회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이와 같은 보편성의 요구는 (공산주의 국가를 플라톤의 국가로부터 구별 짓는) ‘평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철인이 되는 것이 지배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의무였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작 실현된 것은 돈이 아니라 언어의 평등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들을 언어화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에, 운명에, 그리고 삶에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이다. 언어는 평등의 매개물이다. 권력의 언어화는,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모든 발화자들의 평등이라는 조건에서만 작동할 것을 강요받는다.”(155쪽).

역설과 총체성의 개념을 자기 식으로 전유하면서, 언어가 돈을 대신하는 ‘기호의 제국’ 소비에트를 (재)발명해 내는 그로이스의 묘사는 분명 신선하고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돈과 언어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의 잔인한 이분법은, 특히 우리시대 포스트 좌파 담론의 무기력함 - 차이, 정체성, 다양성, 혼종성, 윤리적 상대주의 따위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타협적, 절충적 공회전 - 을 배경으로 한층 더 신선하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sup>15)</sup>

문제는 몹시 대답하고 파격적인 그의 주장들이 언어 왕국 소비에트를 구성하는 담론체계의 내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분석적 성찰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직 언어만을 수단으로 작동되는 철인들의 왕국”(86쪽)이라는 정의는 그 언어의 성격(역설)과 목적(총체성)만을 명시할 뿐 그것의 문법과 스타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런

---

ойс, Постскриптам 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постскриптому,”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журнал, 65/66 июнь 2007. <http://xz.gif.ru/numbers/65-66/groys/>

- 15) 이 점은 특히 “밖에서 본 공산주의”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3장에서 두드러진다. 그로이스는 전체를 바꾸지 않은 채로 무한한 점근선을 그리는 타협적인 대화를 통해 다른 세계로 나아가려는 서구 좌파에 대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혁명적 주체는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의 근거에 구성적으로 포함된 오점(폭력, 오염)을 드러내려 했던 소위 “저주받은 철학자들”이나 포스트구조주의의 “이성의 모호한 타자를 추구하는 담론”은 “어떤 식으로도 자본주의와 대립적 관계를 맺을 수”없으며, 기껏해야 다른 소피스트들의 언어에 상처를 낼 수 있을 뿐이다.

이유로 인해 그로이스의 접근이 이 독특한 언어시스템의 다이내믹(변화)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호의 제국을 둘러싼 그로이스의 묘사는 그것의 ‘끝’을 (자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sup>16)</sup> 만일 그로이스식의 “메타노이아(metanoia)”가 아니면, 이 특별한 (언어)시스템의 끝(종말)에 관한 다른 설명은 어떻게 가능할까?

#### IV. 후기 사회주의: 스탈린의 패러다임 전환

바로 이 지점에서 그로이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제출된 또 한편의 연구가 특별한 흥미를 끈다.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라는 흥미로운 제목을 달고 있는 알렉세이 유르차크(Alexei Yurchka)<sup>17)</sup>의 연구서는 (언어의 왕국

16) 소비에트의 해체가 “공산당 지도부의 주도하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산주의의 자기폐지”의 결과, 즉 철학적으로 볼 때 “메타노이아(metanoia)”라 불리는 순수하게 수행적인 종결/전환의 결단에 해당한다는 그로이스의 주장은, (어떻게 해도 종결될 것 같지 않은, 어쩌면 종결의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것 같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현실을 배경으로 강렬한 울림을 갖는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계속하기를 그만두는 것, 지나간 길을 따르기를 그만두는 것, 악무한의 쳇바퀴 굴리기를 그만두는 것”(139쪽)이야말로 혁명적 주체의 고유한 자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르게 보자면, 이는 그로이스가 그러한 언어제국이 자신의 끝에 관한 ‘다른’ 내러티브 - 냉전에서 서의 패배나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과라는 식의 뻔한 설명 이외의 - 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즉 스스로의 종말을 설명할 ‘내적 논리’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17) A. Yurchak,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Univ. 2005). 1960년생인 유르차크는 러시아 출신으로, 1997년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언어 및 문화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버클리 대학교 인류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출간 이래 지금껏 관련 학계의 비상한 주목과 더불어 러시아학 분야를 넘어서는 폭넓은 관심을 받은 이 책으로 유르차크는 2007년 전미 슬라브동유럽유라시아 학회가 수여하는 최고 저작상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저자가 직접 러시아어로 옮긴 러시아어본 *Это было навсегда, пока не кончилось: последнее Советское поколение* (М: Н.Л.О. 2014)으로 러시아 계몽자상(Просветитель)상 인문학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및 소비에트 시기 문화연구에서 이 책의 방법론이 갖는 특별한 함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서평을 참조할 수 있다. 김수환, 「소비에트 마지막 세대의 눈으로 본 후기 사회주의: 알렉세이 유르차크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1호, 한국러시

소비에트라는) 『코뮤니스트 후기』와 동일한 전제서 출발하면서도, 그로이스가 메타노이아 개념을 통해 우회해 버렸던 바로 그 지점(소비에트의 ‘끝’)을 정확하게 겨냥한다.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라는 책의 부제가 보여주듯이, 이 특별한 제국의 끝을 바라보는 저자의 관심은 20세기 소비에트 역사의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다. 이 시기는 대략 스탈린의 사망(1953년)에서 시작해 해빙기(호루시초프)와 정체기(브레즈네프)를 아우르는 30여 년의 기간이다. 유르차크이 “후기 사회주의(Late Socialism)”라는 말로 부르는 이 시기 동안, 소비에트 시스템 내부에서는 모종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이 내적 변화는 다시 나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sup>18)</sup>이라 불리게 될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전환을 발생시켰다. 이 내적 변동과 전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낳은 구체적인 결과들을 확인하는 것이 유르차크의 저서의 목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로이스와의 흥미로운 접점이다. 앞서 말한 ‘내적 전환’의 시작점, 후기 사회주의의 시대를 연 패러다임 전환의 첫 단추로 유르차크이 꼽고 있는 것은 (그로이스의 책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언어학자 스탈린’의 개입이다. 최고 지도자가 학문적 논의에 직접 개입했던 저 이례적인 사건, 그로이스가 소비에트식 존재론에 부합하는 심오한 언어철학으로 재해석했던 스탈린의 논설 「언어학에서 마르크스주의에 관하여」는 유르차크에 의해 전혀 다르게 조명된다. 그에 따르면, 언어를 상부구조로 상정하는 속류 마르크스주의적 언어모델(마르크주의)을 공격하면서 스탈린이 내놓은 대안은, “언어의 객관적인 본성,” 즉 “언어 구조와 진화, 인지, 심리학과 생물학 간의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지배하는 객관적인 과학법칙들”(45쪽)이었다.

---

아문학회, 2012, 187-199쪽.

18) Yurchak, 앞의 책, p. 26. 이후로는 본문의 괄호 안에 꼭 수표기함.

스탈린의 개입은 과학과 예술 분야에 남아있는 이상적인 아방가르드의 사유를 근절하고, 그것을 ‘사실주의’적인 객관적 과학 법칙으로 대신하는 더 광범위한 캠페인의 논리적 결론이었다(.....)1930년대에 이론의 과학성이 학자의 당파성(*partinost*)(개인이 당의 세계관에 입각해 사유하는 것의 일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면 이제 ‘과학성’은 ‘객관적인 과학 법칙’과 연동되기 시작한다.(46쪽)

유르차이 보기에, 언어학의 경우는 당시에 지적, 과학적, 정치적, 미학적 담론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스탈린의 개입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주목할 것은 과학성의 기준이 “학자의 당파성”에서 “객관적인 과학법칙”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결코 학문의 객관화 경향 따위에 국한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심오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변화는 (스탈린이라는) “주인(master)의 자리”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주인의 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외부에 자리한 채 객관적 진실에 대한 외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주인의 형상”(10쪽)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 모든 다른 이데올로기적 담론들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상위의 ‘메타담론’이 바로 주인의 자리다.

오해하지 말 것은 메타담론의 원천으로서의 이런 ‘주인의 자리’가 세상 만물에 관해 자기 멋대로의 해석과 평가를 내놓는 전체주의 사회의 통념적 독재자 형상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사실이다. ‘자리’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이것은 구체적인 인격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유르차이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가 모더니티 이데올로기 내부의 일반적 역설(“르포르의 역설Lefort’s Paradox”)로 규정한 바 있는, 이데올로기적 언명과 통치 사이의 근원적인 균열과 모순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때 주인의 자리란 이 모순을 일시적으로 은폐함으로써 근대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모종의 “상상적 외부 자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소비에

트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근대성 자체의 소비에트식 발현”에 해당한다.<sup>19)</sup>

르포르가 주장하기를, 모든 유형의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본연적으로 내재하는 이 모순은 오로지 “주인(master)”의 형상을 통해서만 은폐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외부에* 자리한 채 객관적 진실에 대한 *외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이 주인의 형상은 “진실이 그를 통해 나타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모순을 감춘다(1986, 211-12) 요컨대, 유토피아적인 계몽의 이념에 기초한 근대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그것 외부에 자리한 상상적 위치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바, 그러한 상상적 외부자리가 의문시되고 파괴될 때 그것의 정당성은 위기를 겪게 된다(10-11쪽).

유르작에 따르면, 르포르의 역설의 소비에트식 판본은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혁명적 기획 자체로부터 생겨났다. “그 두 가지 목표란 과거의 정전(개논)을 영원히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미학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런 창조적 실험과 혁신을 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이다.”(11쪽). 사회를 선도하고 완성하는 과정은 정치적 프로그램의 통제 하에 복속되어야만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이고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바로 이런 역설, 즉 “문화 생산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공공연히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것의 독립과 실험을 진작하고자 하는 소비에트 국가의 끝없는 열망”(12쪽) 속에 내재하는 이 역설은, 이데올로기 담론의 외부에 서서

---

19) “서구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도 근대성의 한 부분이다. 푸코가 강조했듯이, 심지어 스탈린주의나 파시즘 같은 권력의 ‘병리적 형태들’조차 ‘그것들의 역사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별반 독창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이미 다른 사회에서 나타난 바 있는 메커니즘들(...)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우리의 정치적 합리성의 이념과 장치들을 사용하고 확장했을 뿐이다(Foucault 1983, 209). 근대 프로젝트의 일종으로서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근대성의 핵심적 모순들을 공유한다.”(10쪽).



그에 대한 주석적 논평을 행하는 르포르의 “주인” 역할, 곧 스탈린을 통해서만 은폐된 채 기능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탈린이 “주인의 주관적 지식에 기초한 모델로부터 객관적인 과학적 법칙에 근거한 모델로” 옮겨간다는 것은 스탈린이라는 “메타-주석자”의 자리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스탈린 자신에 의해 개시된 이 최초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뒤이은 그의 사망은, 단지 독재자 한명의 사라짐을 뜻하는 게 결코 아니다. 이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심오한 변화,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적 담론 구조 전체의 심오한 변동과 재조직화를 불러오게 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대한 르포르의 역설을 감춰줄 수 있는 외부 목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 이 역설을 구성하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부조화는 고삐가 풀려 버렸다. 결국 이 변화는 후기 사회주의 시기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이데올로기의 언어부터 이데올로기적 의례, 실천, 조직들의 본성까지)의 담론 구조에 심대한 변형을 야기했다.(14쪽)

그렇다면, “주인의 자리”의 이와 같은 사라짐이 이데올로기적 담론 체계 전반에 야기한 실제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스탈린이라는 ‘외부 주석자’가 사라짐으로써, 특정 텍스트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정해줄 수 있는 ‘외부 정전’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특권 또한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로 인해 이제는 “그 어떤 텍스트라도 잠재적으로 ‘탈선(deviation)’으로 읽힐 수 있는 위험”(47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외적인 규범(이데올로기적 표준)의 부재가 규범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모든 표현들이 반규범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당연한 대응은 단 하나 뿐이다. 고착화된 형식적 표현에 강박적으로 집착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길이다. 권위적인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정해진 형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것, 즉 “표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일은, 이제 소비에트의 모든 담론 생산자들의 피할 수 없는 강박이 되었다.<sup>20)</sup> 바로 이것이 스탈린이 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물, 유르차이 “형식의 헤게모니”라는 말로 지칭하는 담론의 “초규범화(hypernormalization)” 상황이다.<sup>21)</sup>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꾸준히 표준화를 겪었고, 모든 텍스트들은 마치 하나의 텍스트에서 발췌한 것처럼 점점 더 비슷해졌다. 당의 텍스트들을 생산하던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주관적인 목소리를 최소화하여, 예전에 이미 생산된 텍스트들처럼 들리게 하는데 몰두했다. 그들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텍스트에 끝없는 수정을 가했고, 이는 결국 권위적 언어의 점진적인 단일성, 익명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낳았다. 집단적 글쓰기, 상호 모방, 그리고 규칙화된 편집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문체는 평범해졌고, 텍스트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최소화되었다. 중앙위원회의 연설문작성자들이 “블록-글쓰기(block-writing)”(49쪽)라고 불렀던 이 새로운 텍스트 집필 방식을 통해, 텍스트의 서사구조는 많은 정형화된 연설과 담화들이 “처음부터 끝으로 읽어도, 끝부터 처음으로 읽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순환적인 것이 되었다.<sup>22)</sup>

한편, 자신들의 텍스트들에서 그 어떤 모호함도 피하려는 지도부의 노

20) 공식적 표현의 형식상의 아주 사소한 변경조차도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언어 형식을 향한 편집증적인 집착에 관한 지적의 앞선 지적을 상기하라.

21) 2장의 제목은 “형식의 헤게모니: 스탈린의 섬뜩한 패러다임 전환 Hegemony of Form: Stalin’s Uncanny Paradigm Shift”이다.

22) “문장들은 점점 길어졌고, 동사 수는 줄었으며, 명사들은 사슬처럼 엮여서 긴 명사구를 만들곤 했다. 수식어는 몇 개씩 중첩되면서 최상급 형식을 취했다(...)소비에트의 권위적 언어는 모든 구조적 층위(통사, 형태론, 서사 등)와 맥락들에서, 점점 더 인용 가능하고 순환적인 것이 되었다”(49-50쪽). 여기서 유르차는 담론의 이런 변화과정을 어휘, 형태론, 통사론, 화용론, 서사구조, 시간성, 나아가 상호텍스트적 층위에서 상세하게 분석하는데, 이는 그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류학자일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전문지식에 통달한 매우 탁월한 ‘담론분석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력은 언어적 구조의 엄격한 표준화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이 새로운 표준을 대단히 다루기 불편한 것으로 만드는 지경까지 몰고 갔다. 저 악명 높은 “참나무 언어(duvovyi iazyk),”(61쪽) 클리셰로 넘쳐나는 딱딱한 나무 같은 문어체 언어는 바로 이 과정에서 생겨났다. 놀랍게도 이와 같은 형식의 “초규범화”는 연설문이나 당 문서 같은 언어적 장르뿐만 아니라 시각적 선전물이나 정치적 의례 같은 권위적 담론의 ‘비언어적 장르들’(가령, 레닌과 마르크스의 초상화, 정치국 위원들의 사진, 낫과 망치를 형상화한 설치물들, 포스터, 깃발, 정기적인 퍼레이드행사 등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이를테면, “레닌의 새로운 초상화는 이전에 비해 더 고정되고 반복적인 스타일로 그려졌던 바, 즉 한정된 배경과 포즈들, 더 적은 색채와 조각 기법, 재료, 색, 질감 등을 사용하면서 매번 반복될 수 있는 시각적 구조의 고정적 요소들을 활용했던 것이다.”(55쪽)

표준화된 형식에 대한 강박이 극단화되어 거의 편집증에 가까워진 이런 상황에 대한 묘사는, 그러나 어떤 점에서, 유르차이 풀어내려는 ‘진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완전히 예측가능해진 담론의 상투적 표현들이 사회전체를 가득 뒤덮어 움썅달썅 못하게 되어 버린 듯한 이런 갑갑한 상황 속에서, 소비에트 전 시기를 통틀어 가장 의미심장한 역설적 전환이 발생한다. 후기 사회주의의 권위적 담론을 작동시키고 실천을 조직했던 핵심원칙이었던 “수행적 전환”이 그것이다.

## V. 수행적 전환: 역설의 소비에트

유르차는 1950년대 이후 소비에트에서 권위적 언어를 평가하던 ‘외적’ 목소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가 ‘초규범화’ 혹은 ‘내적 표준화(normalization)’라고 부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낸다. 언어적, 비언어적 장르를 포괄하는 그의 꼼꼼한 묘사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당대의 소비에트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고유한 담론 시스템으로서 소비에트 체제를 바라보는 유르차의 독특한 시선이 부각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그에 따르면, 소비에트의 평범한 시민들은

권위적 언어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피해갈 수 없으며 고도로 규범화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진술적 의미로서 문자 그대로(literally) 읽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진술이 “사실”을 재현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 그 대신에 소비에트 시민들은 권위적 언어를 (.....) 수행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76쪽).

여기서 강조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들은 헤게모니를 쥔 권위적 언어담론을 결코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사실 그럴 수도 없었다). 권위적 이데올로기 담론에 참여하는 것, 이를테면, 정확한 언어 형식을 반복하고, 의례에 참여하고, 선거장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따위의 일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들이 나름 매우 중대한 “효과들”을 창출하기 때문인데, 이 효과들은 많은 경우 그 행위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의 (진술적) ‘의미’와는 동떨어진 것들이었다. 둘째, 소비에트의 시민들은 권위적 담론이 초규범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들은 헤게모니를 쥔 권위적 언어가 고도로 규범화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의 진술적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수행적 전유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초규범화된 형식의 편재성 그 자체였다.

이와 같은 역설의 논리, 그가 “수행적 전환”이라 지칭하게 될 흥미로운 역설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유르차는 긴 이론적 우회를 거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을 도입한 오스틴에 따르면, 언어에는 무언가를 서술하는 (가령, “날씨가 춥다”, “내 이름은 조이다”)처럼 현실을 묘사하거나 사실들을 제

시하는) “진술적 발화(constative utterance)”와 더불어 직접 무엇인가를 행하는(do) 발화들의 전체 집합을 포함한다.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 말해진 “유죄!”라는 말, 공식적인 진수식에서 선포된 “이 배를 퀸 엘리자베스 호라고 명명하노라”라는 말, 혹은 “내일 비가 온다는데 나는 6펜스를 걸겠다”같은 발화는 사회적 현실을 묘사하는 대신에 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수행한다. 오스틴은 이런 종류의 발화를 “수행적(performative) 발화” 또는 “수행적인 것(performative)”이라고 불렀다. ‘의미’를 전달하는 진술적 발화가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반면에 ‘힘’을 전달하는 수행적 발화는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 없고 다만 적절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화자의 의도가 중요하지만 후자에서는 의도가 아닌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sup>23)</sup>(19쪽).

유르차은 오스틴의 이 구분을 더욱 확장해 담론 일반의 “진술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을 구분하면서, 소비에트라는 담론 시스템의 이해에 있어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하나의 주장을 내놓는다. 즉, 소비에트 시기 담론 분석을 위해서는 진술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이라는 이 두 차원의 ‘동시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담론의 진술적 차원(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만으로는 그것의 진정한 화용론적 함의(그것이 어떤 효과를 산출하는가)를 결코 알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알기 쉬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1970-80년대 소비에트인들은 당 대회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의례들(퍼레이드, 콤포몰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만 했다. 이런 집회에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손을 들어올렸다 (그들은 어차피 결정에 자신의 견해가 중

23) 예를 들어, “선서와 같은 발화행위는 수행되기 위해 심리적 상태로써 의도될 필요가 없다. 누군가 내심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를 품은 채로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서라는 행위의 실행(execution)의 실제성이나 효력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이는 그의 거짓말이 들통 났을 때 그것[그의 의도]이 법적 구속으로부터 그를 면제시켜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19쪽)

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결정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집회 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의’를 뜻하는 이 손드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집회라는 관례적 맥락에서 투표행위가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진술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합법적 투표로서 인정하는 규칙과 규범의 체계 속으로 해당 투표를 묶어두는 것이다(수행적 차원). “투표를 투표로 만들어주는 것은 진술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의 이 결합이다.”(23쪽).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특정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 [선거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으나 투표 행위에 참여하는 일 자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왜 그런가? 그가 “이 선거엔 어차피 한 명의 후보(혹은 하나의 결의안)만 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어차피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결과가 정해져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표(라는 이 관례적 절차)를 무시해도 좋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와 더불어 그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투표라는 이 의례의 성공적인 수행이 다른 중요한 실천과 사건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제도 자체의 재생산 뿐 아니라 그것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학생, 고용자, 시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가능성들의 재생산이 그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투표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보다 더 중요하다.(23쪽)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보다 ‘투표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의례적인 투표 절차의 성공적인 수행이 다른 중요한 사건과 실천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들에 참여하는 것은 그를 관계들의 체계와 집단 속에서 ‘정상적인’ 소비에트인

으로 재생산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의 ‘진술적 차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지만(가령, 그 시간에 책을 읽어도 된다!), 투표의 수행적 차원에는 가깝게 밀착해 있어야만 한다(결정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손을 들어 올려야만 한다!). 체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절차인 이 투표 참여는, 심지어 향후 방금 투표한 결정에 ‘반하는’ 여러 관심사와 의미들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내포하는 중대한 행위인 것이다.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보다 ‘투표하는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란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담론의 진술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 간의 비중이 역전돼버린 상황, 다시 말해 수행적 차원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반면에 해당 담론의 진술적 의미는 점점 더 중요치 않게 되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역전의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앞서 말한 담론의 “초규범화” 상황에서 비롯한 결과다. 어차피 똑같은 정해진 형식의 정확한 ‘복제’만이 문제라면, 다시 말해 그 담론이 *어떻게* 재현되는지가 그것이 *무엇을* 재현하는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면, 이제 그것은 반드시 진술적 의미로서 ‘문자 그대로’ 읽힐 필요가 없어진다. 담론의 진술적 차원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그에 따라 수행적 차원이 현저히 부상하는 이 상황은, 1950년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서 “르포르의 역설”이 다시 열리면서 등장한 “형식의 헤게모니” 상황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1950년대에 시작된 변화, 그 아래에서 소비에트의 권위적 담론이 생산, 유통, 수용되었던 조건의 변화가 야기한 부산물이었다(...)중국에는 고정되고 규범화된 담론 형식의 복제 그 자체가 중요해지면서 이런 담론 형식들의 진술적 의미들은 점점 더 축소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 과정, 그러니까 발화행위의 수행적 차원(즉 이러한 행위를 형식의 차원에서 재생산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이런 행위들의 진술적 차원은 열린 결말, 비결정적인 것, 혹은 그저 부적절한 것이 되는 과정을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이라 부를 것이다.(26쪽)

그런데 후기 사회주의 분석가로서 유르차의 진가는 그가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간다는 데 있다. 유르차는 이와 같은 수행의 과정에서 담론의 진술적 의미가 부적절함을 넘어 ‘비결정적인 예측불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엄격하게 형식화된 공식 담론의 수행적 반복 행위를 통해 그것의 진술적 차원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의미들을 위한 공간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26쪽).<sup>24)</sup> 유르차에 따르면, 수행적 전환은 의례화된 형식적 행위들을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공적 삶 속에서 [공식적인 것과는] 다른 의미들을 전적으로 제약하지도 않았다. “그와 반대로, 의례와 발화행위 형식의 수행적 재생산은 다양하고 복수적이며, 그래서 (권위적 담론의 진술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는) 예측불가능한 의미들이 일상생활에서 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enabled)* 만들어 주었다.”(25쪽)

앞으로 이어질 이 책의 장들에서 나는 1950년대와 1960대에 일어난 권위적 담론의 수행적 전환이 소비에트 시민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적 의미, 규범, 가치와 복잡한 방식으로 분화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맥락에 따라서, 소비에트 시민들은 특정한 의미, 규범, 가치를 거부할 수도, 활발하게 수용할 수도,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수도, 혹은 그것에 무관심할 수도 있었다(...)그것은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한 의미들, 삶의 스타일들이 소비에트 내부 어디에서든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29쪽)

24) 이런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유르차는 모든 화행이 문맥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어긋나게’ 마련되며, 이런 점에서 결코 사전에 완벽하게 의도되거나 결정될 수 없다는 데리다의 주장을 동원한다. 수행적 반복에 내재된 창조적 힘을 부각시키는 그의 관점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재생산되는 규칙과 관례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해지는 변화와 예측불가능성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20쪽). 그런가하면 유르차는 수행성의 기호적 측면을 강조했던 데리다의 견해를 수행성의 사회적(즉 제도적, 권력적) 차원을 강조했던 부르디외의 해석과 접목함으로써, “엄격하게 통제된 제도적 맥락들 속에서도 의도치 않은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는 발화행위”의 힘, 곧 버틀러식의 “수행적인 것의 정치적 가능성”으로 종합해낸다.



실제로 1장(서론)과 7장(결론)을 제외한 유르착의 저서 전체는 이런 예측불가능한 창조적 열림의 다채로운 사례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할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화된 권위적 담론형식의 반복적인 재생산이 구체적인 실행의 과정 속에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긋남과 열림의 공간을 확보하는지, 지배 시스템 안에서 언제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목소리들을 지켜내는지 하는 것들이다. 요컨대 그것은 일찍이 미셸 드 세르토가 말한 “일상의 실천(the practice of everyday life)”<sup>25)</sup>의 다양한 모습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모든 에피소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온갖 창조적 일탈의 전술들(“little tricks,” 98쪽)은 공식 담론과 의례들에 ‘반하여’ 혹은 그것의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전술들은 공식 담론의 반복적인 재생산 과정 자체를 ‘통해서’ 그것과 ‘나란히’ 이루어진다. 유르착이 말하는 창조적 해석 가능성, 일탈의 시공간을 여는 작업(“탈영토화”)은 공식 이데올로기의 ‘외부’가 아니라 그것의 반복적인 수행 ‘한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유르착이 제공하는 생생한 에피소드들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은 소비에트의 평범한 인간들이 발명한 수많은 ‘작은 트릭들’의 배후에서 어김없이 발견되는 것이 다름 아닌 이데올로기적 공식 담론 자체라는 사실이다. 새롭고 다채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소비에트 체제 자체였다.<sup>26)</sup>

25)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lated by Steven Rend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26) 가령 5장의 제목이기도 한 “상상의 서구(Imaginary West)”는 사실 국가가 만든 것이었다. 국가는 문화적 국제주의를 장려하는 동시에 서구의 나쁜 부르주아 문화를 제한해야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1950-60년대 소비에트의 일상 속에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는 해외 라디오 스테이션을 차단했지만 동시에 단파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보급했으며, 서구의 록음악을 금지시켰지만 동시에 녹음

이와 관련해 반드시 지적할 것은, 이 창조적 전술의 과정이 반드시 기존 공식 담론에 표현된 규범이나 의미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유르차에 따르면, “담론 체제(regime)속으로 사소한 내적 전치(displacements)와 돌연변이(mutations)들을 도입”하는 이런 행위들은 참여자들 대부분에게 하찮게 여겨지고, 관찰자들 대다수에게 포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들은 시스템의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매개변수들과 맞설 필요가 없었으며, 더 중요하게는, 해당 시스템이 가진 가능성, 약속, 긍정적 이상, 도덕적 가치를, 그 가치들이 그 안에서 표현되는 시스템의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을 피해가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8쪽). 바로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가 소비에트의 보통사람들에게 의미했던 바, 즉 그들이 자신들의 사회주의적 삶에 부여했던 - 국가 수사학에 의해 제공된 공식적 해석과 상당 부분 다른 -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충직한 콤포물 간부가 자신의 공식적 삶과 서구 록 음악 매니아의 삶을 어떻게 ‘모순 없이’ 결합할 수 있었는지(5장), 이론 물리학자 그룹이 어떻게 당대의 공식적 삶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환경(milieus)을 조성할 수 있었는지(4장), 동지와 적을 가르는 공식적 분할선과는 다른 독특한 ‘우리 편(svoi)’의 사회성(sociality)을 당대의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구축할 수 있었는지(3장) 등을 보게 되는 것이다.<sup>27)</sup>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후기 사회주의의 “수행적 전환”은 어떻게 해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

기를 보급했다. 이런 이중적인 정책은 소비에트의 ‘정상적인’ 젊은이들의 서구 세계를 향한 상상과 서구 록 음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그것을 정당화했다. 서구 록음악과 공산당의 이념을 결합시키려는 일부 젊은이들의 시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능해진다(231쪽).

- 27) “후기 소비에트 사회에서 권위적 담론의 의례와 텍스트가 수행적으로 반복되면서 진술적 차원에서는 묘사되지 않는 새로운 의미들이 부여됐다고 해서, 개인이 다양한 집회, 가능성, 가치, 사회주의의 전제들에 친밀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당이 동원한 미사여구를 융통성 없이 해석하는 데에서 벗어나 본래의 의미, 가치, 약속들을 되찾아오는 것(recapture)도 가능했다.”(28쪽)

## VI. 담론의 끝: 공산주의, 언어와 더불어 살기

지금까지 살펴본 유르착의 분석이 겨냥하는 최종적인 지점이 결국 소비에트의 “끝”이라는 가장 논쟁적인 지점에 가닿아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는 어렵지 않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체제의 권위적 담론 형식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이 오히려 그에 대한 창조적 일탈 및 전유의 계기를 제공하는 역설, 바로 이 역설이 유리착의 저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다. 결국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소비에트의 제도 자체였다는 인식, 아이러니하지만 설득력 있는 이 통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끈다. “한 체제 내부에서 불변적 권위를 지닌 담론이 도처에서 점점 더 많이 재생산될수록 그 체제는 더욱 더 심오한 내적 전치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283쪽).” 체제의 권위를 담은 형식과 표상의 재생산 과정에 대중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권위적 담론은 절대적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져 새로운 해석을 행해 열리게 마련이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형태의 의미 있고 창조적인 삶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유르착이 그려내고 있는 후기 사회주의의 풍경은 흔히 쇠퇴(decay)나 정체기(stagnation)로 불리는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내적 재조직화의 과정에 더 가깝다. 책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사회주의란 “단순한 국가의 헤게모니 수사학이 아니라 창조적 세계, 상상의 공간, 그리고 의미있는 사회성의 형식들로 가득 찬 정상적인 삶(normal life)”(295쪽)으로서 경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그 체제의 영원성이 그토록 강하게 유지되었던 것은 어쩌면 전적인 오해가 아닐 수 있다. 그 체제의 붕괴가 그토록 놀라웠던 이유는 그 안에서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세계들’이 그들의 삶을 그토록 복잡하고 충만하며 창조적인 것으로, 즉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영원했던’ 것이다. 막상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유르차이 이 책 전체에서 그려내고 있는 역설의 상황, 외부자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분명 ‘모순’으로 느껴지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모순 없이’ 가동되었던 상황은, 소비에트의 (급작스런) 붕괴라는 역사적 사건의 배후를 이룬다. 즉 그의 관점에 입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해진다. 이 역설이 모순으로 체험되지 않는 한 이 체제는 계속해서 (어쩌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해, 이 역설이 더 이상 이전처럼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 체제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그 역설이 글자 그대로 ‘모순’으로 폭로되기 시작한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였다). 소비에트의 붕괴가 그토록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체험된 이유, “사라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영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로이스는 『코뮤니스트 후기』의 서문에서, 공산주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언어 안에서, 언어를 통해 수행되는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물음과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썼다. “온전히 언어만을 매개로 사회를 통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힘을 언어가 획득할 수 있을까?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러할까?”(13쪽)

유르차이 묘사하고 있는 후기 사회주의 소비에트의 실상은, 그로이스가 발명해 낸 저 전능한 언어의 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거기서 언어는 진술적 차원에 닿을 내리지 못한 채 이데올로기적 형식의 껍데기로 부유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세계는, 그 반쪽짜리 언어의 깜짝 놀랄만한 역량을 반증하고 있다. 언어가 무언가를 온전히 ‘의미하지’ 못할 때에조차, (그 무능력의 상황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인간은 그 언어를 통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언어의 불가능성은 여전히 가능성의 조건인 것이다. 최소한 언어와 더불어 살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말이다. 문제는 인간이, 그리고 우리 시대가 ‘언어와 더불어 살기’라는 저 근본적인 실존의 조건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지의 여부다. 인문학 혹은 인간학의 화두가 ‘다른’ 말을 하는 존재들(이른바 인종

적, 성적,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점점 더 인간 언어 바깥의 존재들(기계, 동물, 생명)을 향한 관심(포스트휴먼 혹은 트랜스휴머니즘)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는 오늘날,<sup>28)</sup> 공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언어적 실존을 되묻게 하는 예외적 토포스로 (재)등장하고 있다.

---

28) 기호학과 관련해 이런 경향의 함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최근 번역서 2권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마우리치오 랏자라토, 『기호와 기계: 기계적 예측시대의 자본주의와 비기표적 기호계 주체성의 생산』, 신병현, 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7; 에두아르도 콘, 『숲은 생각한다: 숲의 눈으로 인간을 보다』, 차은정 옮김, 사월의책, 2018.

## 참고문헌

- 김수환, 「소비에트 마지막 세대의 눈으로 본 후기 사회주의: 알렉세이 유르차크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1호, 한국러시아문학회, 2012. 187~199쪽.
- 김종영, 『파시즘언어』, 한국문화사, 2003.
- 남혜현, 「의례의 언어로서의 소비에트 노보야즈」, 『슬라브어 연구』 21(2), 한국슬라브어학회, 2016. 115~131쪽
- 마우리치오, 랏자라도 저, 신병현, 심성보 옮김, 『기호와 기계: 기계적 예측시대의 자본주의와 비기표적 기호계 주체성의 생산』, 갈무리 2017.
- 보리스, 그로이스 저, 김수환 옮김, 『코뮤니스트 후기』, 문학과지성사, 2017.
- 슬라보예, 지젝 저, 박정수 옮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 에두아르도, 콘 저, 차은정 옮김, 『숲은 생각한다: 숲의 눈으로 인간을 보다』, 사월의 책, 2018.
- 이기웅, 「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마르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193~239쪽.
- 크리스티안, 마라찌 저, 서창현 옮김, 『자본과 언어: 신경제에서 전쟁경제로』 갈무리, 2013.
- Badiou Alain, *The Communist Hypothesis*, translated by David Macey and Steve Corcoran, Verso, 2010.
- Certeau Michel de,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lated by Steven Rend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Virno Paolo, *A Grammar of the Multitude: For an Analysis of Contemporary Forms of Life*, London: Semiotext(e), 2004.
- Yurchak Alexei,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Кронгауз Максим, “Бессилие языка в эпоху зрелого социализма”, Слово за слово: о языке и не только, РАНХ и ГС Дело, 2015. сс. 77-89.
- Юрчак Алексей, Это было навсегда, пока не кончилось: последнее Советское поколение, Москва: Н.Л.О., 2014.
- Гройс Борис, Постскрипtum 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постскриптуму,”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журнал, 65/66 июнь 2007. <http://xz.gif.ru/numbers/65-66/groys/>

## Communism and sign:

### From linguistic rule to performative shift

Kim, SooHwan

This paper aims at (re)investigat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mmunism and language in terms of historical experiences of Soviet Union in 20<sup>th</sup> century. Critically reviewing Boris Groy's famous thesis about Soviet communism as the "kingdom of language", in which Soviet system is regarded as the result of "linguistic turn, executed in the dimension of social practice", i.e., as a state of "total linguistification of society", I will examine it in comparison with another very interesting view on the language system of communism(socialism): Alexie Yurchak's controversial thesis on "performative shift" in late socialism. Yurchak's unique view on Soviet socialism as a specific discourse system, thoroughly illuminating peculiar paradox of Soviet discourse system in the period of late socialism, in which performative repetition of authoritative ideological discourses does not prohibit, but rather enable the possibility of creative deviation from or unexpected reappropriation of them, could provide us with profound insights on the problematics around the collapse (the end) of "linguistic imperial" of Soviet Union.

Keywords : Soviet communism, Boris Groys, language, paradox, Alexei Yurchak, performative shift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

